

2021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모의고사 분석

임 권 의 T  
( 회 파 27 )

# 서문

전반적으로 6평보다 난이도가 올라간 편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같이 각 파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학에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에서 난이도가 확 올랐는데, 제 문학 특강때 '윤선도의 만홍'이 예상 지문에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엄청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전시가는 'EBS연계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평때 간만에 비연계가 나왔지만 .. 수능때는 연계될 확률이 훨씬 큼니다.

문학에서는 난이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과 별개로 '선지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선지의 길이가 늘어나면 학생들이 실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의 무언가를 착각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건데, 이러한 류의 실수는 실력의 일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출도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사설에 자주 마주치기를 권합니다.

독서에서는 '정보량 처리'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디 사이트의 누군가는 이해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세 지문 모두 정보량이 상당했고 지문을 읽으며 이를 완전히 정복해서 문제로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행정입법'지문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가)와 (나)로 나뉘어 나온 예술 지문도 있지만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행정입법 지문이 가장 볼 만합니다. 다만 수험생이 '어디를 기억하고 어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돌아올 곳으로 남겨두었는가'가 핵심이 되었던 듯합니다.

독서의 <보기>문제에서 힘을 뺀 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 외의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보면 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의 우주론 지문이 너무 썩던 걸 의식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평가원은 독서나 문학에서 모두 이해보다는 정보 처리 능력을 더 묻고 있습니다. 물론 고전시가와 수필에서 '자부심'을 묻는 문제는 정보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만, 이는 조금 내신타한 문제로 '만홍' EBS를 공부했다면 자부심임을 쉽게 캐치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유의해서 EBS를 공부하고, 정보처리 능력 위주의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현 수능의 기조에 맞는 공부법입니다.

PS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기본입니다만 .. 이해하며 읽으면서 '이건 돌아와서 처리해야겠다'는 부분을 가려내는 훈련을 중점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2021 9월 모의평가

## [문법]

### 11

이번 문법은 정말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했느냐’와 ‘기출을 많이 풀어봤는가’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다 각기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1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문법의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모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공부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출에 대한 꼼꼼함도 부족합니다.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정답률 64%]

####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밑줄 친 ㉠ 바로 뒤를 보시면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선지와는 별개로, ㉡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었고, ㉢에는 단모음 |가 반모음 j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 직접적으로 ‘반모음’에 대해 판독하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기출을 꼼꼼히 봤다면 이번 11번 문제는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12-13

평가원이 쓰는 문법의 어휘들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듯한 어휘들이 나오지,

예외적인거 끝어다 쓰지 않습니다.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암’, ‘-억’,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1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을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을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을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이번 지문에 ‘무덤’과 ‘맨발’이 나왔는데, 각각 2014 / 2018학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 18수능에는 맨발이 아니라 맨손이지만.. 비슷한 걸로 쳐줍시다.

㉡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2018학년도 수능 11번]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2014학년도 수능 B형 11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기출을 많이 봤으면 생소하지 않게 선지를 풀어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아는 어휘가 나오면 시험장 내에서 긴장이 크게 해소됩니다.

13번 문제는 어휘의 ‘의미 차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휘의 의미 차이는 우리가 사전을 외우고 다니지 않기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 절대적으로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기출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실린 적 있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작년 수능입니다.

㉠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12번, 정답률 57%]

< 보      기 >

영희 :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뎀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 너 빛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빛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빛쟁이                      ② 빛쟁이, 금방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⑤ 빛쟁이, 뒤, 금방

‘빛쟁이’와 ‘금방’은 각각 다의어적 의미를 띠며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맺는데, 이런걸 판별하는 것은 기출에 대한 경험치 차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이 문제 틀렸으면 다의어 파트 기출 다시 보세요.

# 14

품사와 문장성분은 매번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뭐가 나오는지 은근히 정해져있는데, 이걸 연습 안 한다는 건 평가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유사한 기출을 가져왔으니 확인해봅시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A형 13번, 정답률 60%]

— < 보 기 >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본다.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4.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59%]

— < 보 기 > —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 실천하기 ㉢ 원한다면 제대로 ㉣ 된 계획세우기가 ㉤ 선행되어야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 15

고전문법은 전통적으로 ‘고전본’와 ‘현대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3번선지의 ‘방점’이 눈에 거슬렸을 겁니다. 방점이 뭔지 알았어야 3번 선지를 아예 제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방점이 뭔지까지 내가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야해? 라고 한다면 평가원이 ‘응 알아야지?’라고 한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 그러면 이제 모든 고전을 다 외워야 하나 ? 진 좀 반대입니다. 진 항상 공부할 걸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출의 고전 보기와 선지를 짝다 정리하길 권합니다. 그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번 방점 문제도 당연히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지로는 안 나왔지만 .. ‘방점’과 답선지였던 ‘뿌·메’까지 모두 언급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훈민정음-언해, 세조 5년’인 것까지 그대로 똑같은 보기였습니다. 기출에 충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B형]

— < 보 기 > —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ㅅ’과 ‘ㅍ’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ㅁ’은 ‘ㅂ’과 ‘ㄷ’이, ‘ㅃ’은 ‘ㅅ’과 ‘ㅈ’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라 : 말싸·미 中韓國·귀·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ㅃ·들 시·러 퍼·디 : 문·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똥 字·종·를 ㅁ·ᄃ·노·니 : 사  
 름·마·다 : ㅎ·예 :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한·키 호·고·져 홍 싹·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ㅃ·들’의 ‘ㅁ’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중성은 ‘ㄷ’으로 발음 되었군.
- ④ ㉣을 보니, ‘:ㅎ·예’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뿌·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 16-19 [현대소설]

일단 이기영의 고향은 저도 못 맞췄습니다. 나머지 EBS는 독서까지 다 적중을 했는데 ..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할지 감도 안 옵니다. 작년 자전거도독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소설은 적중을 포기하고 살아야하는건지 참.. 맞추신 분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인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요약적 서술’이라는 말을 보고 바로 손이 가야 정상인데 .. 이걸 제가 집필한 ‘수능적 문학 개념’을 보셨던 분들이면 ‘요약은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바로 답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봅시다.

2021.9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움\*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던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다른 파트도 충분히 요약적이지만,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해보면 ‘안승학’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특히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뭐 최소 3년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린겁니다. 이거하고 정확히 비슷한 문제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다. 밑의 문제를 봅시다.



2014.6.B

이때 대사가 응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응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  
 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왈,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  
 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  
 리오?”  
 [A]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승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응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응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O.X)

출처 : 수능적 문학개념 (ORBI박스)

3년이라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전공자면 알 수도 있는데 원래 고전소설에서 뭐만 하면 ‘적당히 긴 시간’을 3년으로 쳐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에 대해 평가원이 ‘압축적’이거나 ‘요약적’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이정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풀’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작품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기>의 정보가 제대로 선지에 반영됐나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고향은~’이라고 명시 안 했으면 선지에서 <보기>의 정보를 더 끼워맞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문으로 돌아가 선지와 보기가 알맞게 끼워맞춰졌나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승학이 ‘위엄스럽게’ 하대면서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지문 내용) 맞지만, 이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보기 내용) 내용과 맞물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불안함을 느낀 것뿐입니다.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는지 잘 알았다면 안 틀렸을 선지입니다.

## 20-25 [독서예술]

이제 별일 없으면 수능에도 융합지문 대신 (가)와 (나)로 지문이 쪼개져서 나올 것입니다. 2022학년도 예비평가의 기초를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다만 '이해'보다는 '정보처리'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여기 나온 사상가와 사상은 거의 1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지문을 읽으면서 다 외운 후 문제 풀러 가는 거 자체가 오만입니다. 이해하는거 중요한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정도는 읽으며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표시해두고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능장에서 국어 만점 많이 받아본 저도 돌아가서 풀었습니다. 돌아가서 푸는 건 당연한겁니다.

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인상적인 문제를 꼽자면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살다살다 내용전개방식의 공통점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 이유는 아마 '모방론-)'표현론, 형식론'까지가 너무 짧기에 4번 선지를 답으로 하기에는 뭔가 모자라다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기까지 2문단이면 충분했고, 그 뒤의 내용은 계속 그 문제점(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알아가야 합니다. 짧게 나와도 그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거면 그것도 맞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얼마나 지문으로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이해만으로 풀려고 한다고?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걸? 진짜? 암기력이 대단한가보다... ~~나 대신 박사까지 국문과 학위 따주라..~~

# 26-30 [독서사회]

흥미로운거 하나 건지고 갑시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

26번은 일치/불일치

27번은 발문에서 위임명령을 대놓고 물어봄

28번은 발문에서 행정규칙을 대놓고 물어봄

29번은 뭐가 나올까? 당연히 조례다.

물론 위임명령의 일부도 함께 나오긴 했지만 29번에서 당연히 조례가 나온다는걸 알고 풀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핵심은 '행정입법'입니다. 원래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의 일부를 행정부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을 뜻한다고 바꿔 읽어야합니다. 행정입법=원래 국회가 법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부가 법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주면 좀 바뀌서 읽어봅시다.

또한 27번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 아마 틀렸다면 포괄적 위임이 뭔지 지문에서 못 읽어내서 그랬을 확률이 큼니다.

다음의 지문분석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제 설명투가 반말이라.. 거슬린다면 다음부터 꼭 바꾸겠습니다 ㅠ ㅠ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 포괄적 위임의 정의가 나왔다. 다시 읽어보자. 국회에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위임명령'이긴 한데, 국회에서 그냥 위임만 해주고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안 정해줬다는 거다. 생각해보면 제대로 닉값한거다. 그래서 '포괄적'위임이라는거다. 범위를 아예 안 정해줬으니 포괄적으로 위임해줬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된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미 '한편'이라는 말에서부터 포괄적 위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느꼈어야 한다. ㉠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포괄적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포괄적 위임은 '위임받은 범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 31-33 [고전소설]

솔직히 심청전이 안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심청가, 흥보가, 춘향전 이렇게 세 개는 수특/수완에 실렸  
다 하면 전 해 평가원에 나온게 아닌 이상 중요도 최상위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힘쓰기만 했다면 안 틀렸을 문제들입니다. 특히 32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그럴싸하지만 아닌 선지'들을 걸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독서는 돌아가면서 문학은 안 돌아가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대학에서 '음  
이 학생은 어려운 독서가 아닌 쉬운 문학 3점짜리를 틀렸으니 97점보다 높게 쳐줘야해!'라고 할 거  
같나요? 배점은 똑같습니다. 그니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33번도 불만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 작품이 명시되었으니 <보기>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

<보기>에 나타난 모순 상황은 총 2가지입니다. <보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첫 모순이고 저 부분이  
두 번째 모순이네'라고 먼저 파악하고 지문으로 갔어야 문제풀기 훨씬 쉽습니다.

— <보 기> —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  
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  
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  
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첫째 모순은 '심청이가 희생함으로써(효) 부친 곁에 남지 못하는(불효)' 효를 통한 불효의 모순이다.

둘째 모순은 '눈이 한 번에 뜨이는 게 아닌 극적인 상황에 뜨이는 것'이다.

셋째 모순은 효보다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쓰인 것이다.

- ③ 심청이 '어찌 아버지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  
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은 첫째 모순에 대한 이야기로, 아버지 곁에 남지 못한다는 걸 걱정하  
다는 말이겠다. 반면 '어찌 아버지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는 건 아버지를 걱정해서 물에  
빠지겠다는 정반대의 뜻이다.

<보기>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

# 34-37 [독서과학]

이것도 안 나오는게 이상한 소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독제 얘기는 당연히 나올법하지 않나? 솔직히 누가봐도 나올법합니다. 문제는 이게 9평에 나와버려서 수능에 뭐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정보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읽으면서 솔직히 문과생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병원체를 'Hospital body'로 알까봐.. 생명과학러들은 많이 웃을 개그지만 사실 저 농담하는거 아닙니다..진짜 근태 요즘 책 안 읽은 학생들 보면 '병원체'를 보고 '병원'에 꽂혀있는 경우를 더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자어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병'의 '원인'인 '체(몸)'인 셈이니까 '감염을 일으키는 무언가' 정도로 해석해주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멸균제' '감염방지제' '소독제'는 각각 기적으로 나왔는데, 소독제는 감염방지제의 일부라고 치고. 멸균제와 감염방지제는 이름만 들어봐도 뭐가 더 쟁쟁하게 살균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때 Nick값을 살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5번 문제를 보자.

2번선지에 한 번에 손 못 댔다면, 독해할 때 4문단에서 5문단으로 매끄럽게 못 넘어가고 험뻑거린 것입니다. 뭐 물론 오해할만 하긴 합니다. '여러 곳에서 나온 정보를 한 곳에서만 확인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평가원의 코드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1문단)*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능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4문단)*

-> ②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놓고보면 하이포염소산 소듐이 표면의 단백질만 손상시킨다는게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건 5문단을 안 본 상태의 얘기겠습니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5문단)*

-> 이런 5문단의 내용까지 확인했어야 하이포염소산 소듐이 '병원체 내에서'도 산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두 군데 나오면 둘 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평가원 문제 하나 가져다주겠습니다.

2017 수능

그중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이렇게 보면 F가 가진 효소 복합체가 셀룰로스를 분해하기에, '효소가 셀룰로스를 분해한다'는 말에 꽂히면 굉장히 그럴싸한 말로 보인다. 근데 이건 한 문단에서만 정보를 파악한거다. 셀룰로스는 이거 보다 위에 한 문단에 한 번 더 나온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 셀룰로스는 섬유소인데, 반추동물은 이것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미생물 F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게 가능한데, 이건 '반추동물의 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거다.

이 문제도 오답률 제법 높았고, 17수능 문제였다. 35번 문제 풀면서 '한 어휘에 대한 정보가 두 번 나왔는데 헛갈릴법 한' 사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이렇게 높다.

37번도 충분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3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 학생의 추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보면, [가]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평가원보다는 이제 이감에서 많이 본거같은데.. 지질과 캡시드를 보고 1문단과 4문단으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 풀어봤을 테니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보기>가 어디의 무언가와 맞물리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할 지문을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유사한 지문으로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키트지문이 있습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 —〈 보 기 〉—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①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세균’을 보고 바로 〈보기〉의 ‘직접방식’에 대입하는 훈련이 돼있어야 합니다. 범지문의 경우 엄청 쉽게 대입이 가능해서 따로 연습이 필요 없으나, 과학지문은 항상 정보가 중구난방이라 대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학지문의 문제 보기는 ‘어디 문단의 어디와 연결하지?’를 고민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철학지문에서도 대입하는 포인트가 종종 나오나 요즘 트렌드를 보아 ‘다른 철학자’를 보기에 가져와 관점 비교나 비판을 하게 하는 경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 38-42 [고전시가/수필]

오질라게 어려웠나 보던데 .. 일단 본인이 특강에서 고전시가는 '우국지정/자연친화'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고 + 만흥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달달달 EBS 외위값으면 안 틀렸을 문제들 많았습니다.

38번부터 봅시다.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띄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은 운는다 혼다마는  
 ㉠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이 선지가 아마 이번 시험의 백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경험적'이라는 말과 '관념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적용이 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산수 간 바회 아래 띄집을 짓'는건 당연히 경험적 성격입니다. 뭔가 경험적이라고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지만 이정도도 충분히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겪은게 맞으니까요.

또한 '관념적'이라는 말에 대해 잘 몰랐다면 참고합시다. 관념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 경우 '은혜'라는 임금님의 배품에 사로잡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은혜로부터 연결된 공간이 바로 '강산'이고, 이 부분부터 시상이 전개됩니다.

## 관념적

이 단어 제대로 아는 수험생 못 봤다. 이참에 제대로 알고 가자. 관념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형태를 띠지 못한 충성, 인내와 같은 사상들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견해, 생각에 사로잡힌'이라고 보는 게 맞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관념적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현실에 사로잡힌 생각을 드러내'라고 치환해 읽어야 한다.

(출처 : 수능적 문학개념 / ORBI 북스)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두연느나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햏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 이 선지도 왜 틀렸는지 불만합니다. 전 사실 위의 선지보다 이게 훨씬 감명깊습니다. '감각적 표현'은 무조건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감각적 표현은 수능에 나오는 시라면 거의 모든 시에 있습니다. <3수>에 나온 '강산'이라는 시각적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3수>의 정서적 반응인 '즐거움'이 감각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려면 손흥민이 골넣고 세레모니 하는 장면이나 활짝 웃는 모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강산'을 놓고 즐거움이 구체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9번은 <보기>가 사실상 (가)인 셈입니다. <보기>에서 작품 명시를 안 한 경우니 그냥 '여지 파악'정도만 하고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 선지는 좀 많이 뇌절입니다. 3번 선지 못 골랐으면 맥락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옛날돈까스도 좋은데 치즈돈까스가 더 좋아'라고 했을 때 '옛날돈까스와 나와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나요 ..? 제가보기에는 이미 '소원한 관계'도 틀린 말인데 친절할 평가원이 '소원한'이라는 말까지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거 틀렸으면 다음을 봅시다.

2020.6평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업힌 것을 보고 '수직 상승'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업힌걸 보고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평가원에서 혹시 헛갈려할까봐 '수직'이라는 말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능력을 키워보세요.

40번 문제를 틀렸다면 .. 2014 수능 A형 이상의 권태 문제를 풀어보세요.  
45번 문제가 아마 보기문제일텐데, 모든 선지의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40번 문제에 대한 클리닉이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 실지 않겠습니다.

# 43-45 [현대시]

예상대로 김수영의 사령이 나왔습니다. 현대는 이제 극수필만 잘 맞추나 싶었는데 다행히 현대시는 아직 감이 살아 있습니다.

문제 다 쉬웠으니 45번 문제만.

<보기>에서 작품을 명시했으니 <보기>에 전적인 신뢰를 가해야 합니다. <보기>의 내용과 충돌되면 틀리다는 겁니다.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위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보기에서 화자가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못한다고 했는데, 선지의 ‘참여만으로는’이라는 말에서 보기와 충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특강에서 배웠던걸 체화한 사람이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합니다.  
비슷한 문제 봅시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lt; 보 기 &gt;

&gt;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 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보기>에서 올바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해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진 사람 ‘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는 오히려 지양의 대상인데, 선지에서 정확히 이 말을 해서 오답선지가 됐습니다.

작년 수능 현대시인 ‘새’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안목을 길러보세요.

평가원 문제 들고 돕니다. 파악 못 하겠으면 특강 와서 배워가세요.